

#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3년 더 이끈다... “경쟁력 강화 집중”

(대표이사)

임추위 “공익성·건전 경영 기여”  
취임 첫해 당기순이익 586억 기록  
퇴직연금 지속 성장세 유지 강조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 /푸본현대생명

최근 3연임에 성공한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이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푸본현대생명은 최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통해 차기 대표이사로 이재원 대표를 추천했다.

푸본현대생명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 대표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원 대표는 2017년 1월 현대라이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2018년 대만 푸본생명으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그해 9월 푸본현대생명의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3년 연속 높은 경영실적을 달성해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이 대표는 푸본현대생명이 지난 2012년 이후 누적된 적자 경영 상황을 타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12년까지 적자를 이어온 푸본현대생명이 이재원 대표가 취임한 첫해인 2018년 당기순이익 586억원을 기록한 것. 이어 ▲2019년 821억원 ▲2020년 951억원의 순이익을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에는 1218억원의 순이익을 거둬들이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늘렸다.

3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내실과 효율,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

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2월 2021년 전략회의를 통해 주력 채널인 퇴직연금의 지속 성장세 유지를 강조했다. 방카슈랑스(BA) 판매채널에서는 저축성과 보장성을 혼합한 상품 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텔레마케팅(TM) 판매채널의 효율제고와 보험설계사(FP) 판매채널에서의 점진적 성장도 올해의 영업 과제로 선정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의 재진입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 기반의 영업활동 지원 ▲비대면 고객 서비스 확대 ▲금융소비자보호 활동 강화 ▲해외투자 등도 향후 과제로 꼽힌다.

이를 위해 푸본현대생명은 ‘음성텍스트변환(STT·Speech To Text) 및 텍스트분석(TA·Text Analysis) 솔루션’을 도입했다. 보험통신판매시 주요 설명의무 이행 여부 및 금칙어 탐지 기능을 적용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고객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에는 출범 이후 첫 인턴십도 모집했다. 마켓 리서치(Market Research), 신사업지원, 데이터(Data) 분석 등의 업무를 통해 글로벌 금융 리더를 양성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재원 대표는 오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3년 임기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백지연 기자 wdus0248@metroseoul.co.kr

#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제도 정비 소상공인 만난 고승범 “만기연장 방안 모색”

(금융위원장)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 등 담아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 제도 정비에 나섰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다. 주요 정책과제에는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2021년 6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해 신속하게 정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먼저 손해사정, 설명의무 등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하도록 했다. 대형 손해사정업자

(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도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도 개선했다.

영업규제, 자산운용 등 기타 현장건의 과제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 발생 시 법령상 결원보증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했다.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운영 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구(舊)연금, 신(新)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복 운영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백지연 기자

중소·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참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협회장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으로 및 금융지원 방안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만나 금융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제외한 첫 현장 행보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175조원+알파(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응해 왔다.

지난해 4월부터는 전 금융권이 동참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부담도 경감했다. 올해 6월부터는 코로나19 이후 매출감소로 신용등급이 하락

해 대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조치도 취했다.

다만 지난 7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짐에 따라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 의견 등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백지연 기자

**상주시**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 상주시 농특산물 ”